

페미니즘

탐구
새활

바로 해 보는

페미니즘
활동지



차 례

〈탐구 활동 1〉 여성 과학자 찾아보기 2

〈탐구 활동 2〉 성교육 수업안 기획하기 4

〈탐구 활동 3〉 ‘남자 영웅’ 스토리 다시 쓰기 7

〈탐구 활동 4〉 싫다고 단호히 말하는 연습하기 10

〈탐구 활동 5〉 울었던 남자들 찾아보기 12

〈탐구 활동 6〉 음-양의 기준으로 ‘나’ 분석해 보기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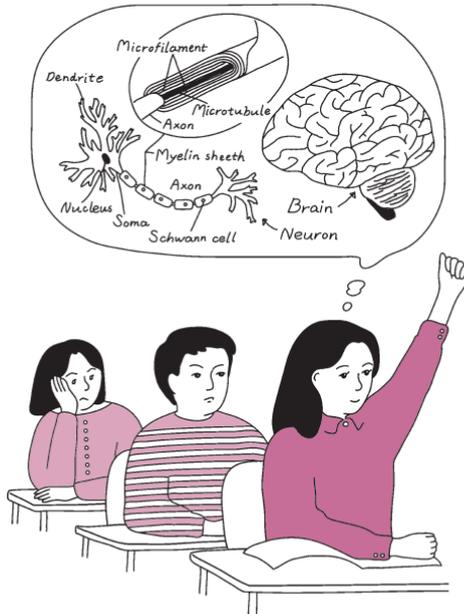


<탐구 활동 1> 여성 과학자 찾아보기

여자는 두뇌보다 얼굴이라고?

수많은 소녀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라고 독려 받는 동시에, “너무 똑똑하지는 마라.”, “너무 성공하지는 마라.”며 기를 꺾는 전형적인 반대 메시지들을 받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들은 성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대상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성별 고정관념이 결합하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똑똑한 소녀들이 자주 듣곤 하는 부정적인 말들, 이를테면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언하는 소녀는 ‘잘난 체하는 애’로 불리거나 똑똑한 것보다 예뻐지는 것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들은 소녀들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에요. 여성의 성취를 가로막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성장하고 더욱 강해지세요!

(본문 2장 참조)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하면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해 봅시다. 친구들과 팀을 나눠서 해결해 보면 더 흥미진진할 거예요. 팀마다 과학 교과서를 준비하고 교과서 내용 중 한 단원씩 집중해야 할 곳을 지정해 주세요. 모두 지정된 단원을 읽고 거기에 언급된 여성 과학자 이름을 대 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간단히 적어 보세요.

여성 과학자 이름	여성 과학자의 업적

자, 각 팀에서 찾은 여성 과학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 보세요. 많은가요? 아니면 적은가요?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인터넷에서 여성 과학자를 검색해 보아도 좋아요.

- 검색으로 찾은 여성 과학자들이 과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나요?

• 처음 보는 과학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과학자들을 과학 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좀 더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교과서에 실리길 함께 기대해 보아요.

<탐구 활동 2> 성교육 수업안 기획하기

우리에게 진짜 성교육이 필요해!

요즘 학생들에게 성교육 시간에 뭘 배웠냐고 물어보면 다양한 응답을 듣게 돼요.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았거나 부모들이 못 듣게 한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믿기 힘들 만큼 종합적인 교육을 받아서 많은 정보로 무장해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반더라도 생식기의 구조에 대해 배우거나 피임법의 유효율을 암기하는 정도이고, 피임을 하는 방법이나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같이 진짜 필요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아요.

많은 부모들과 교사들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성 행위를 할까 봐 두려워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에 대해 정확하고 종합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얻으면 성에 대해 훨씬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정확하고 종합적이며 적절한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여자아이들에게 성은 좋은 거고, 건강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믿음을 전달하면서 성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본문 6장 참조)



여러분은 성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그 교육이 '성교육'이라고 불렸나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렸나요? 답답했던 성교육 수업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성교육 수업안을 짜 봅시다. 그전에 기존의 성교육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체크해 봐요.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 수업 분위기는 얼마나 개방적이고 솔직했나요? _____

• 수업에서 제공된 정보가 얼마나 쓸모가 있었나요? _____

• 어떤 성적 가치를 배우게 되었나요? 공개적으로 소통했나요, 아니면 은근하게 메시지가 주어졌나요?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그때 배우지 않았던 것 중에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나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성교육 수업 외에 어디에서 성에 관한 정보를 얻나요?

• 십 대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성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_____

질문들에 답을 했으니 자신만의 멋진 성교육 수업안을 만들어 봅시다.

1단계. 꼭 포함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상한 다음, 그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세요.

2단계. 선택한 주제를 중심 주제로 삼아 이 주제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아 보세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www.ahacenter.kr), 한국성교육센터(www.ksec.or.kr) 등 다양한 인터넷 정보를 참고하세요.

3단계.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나만의 성교육 수업안을 작성해 보세요!



<탐구 활동 3> ‘남자 영웅’ 스토리 다시 쓰기

왜 항상 ‘남자 영웅’이 여자를 구하지?

흔히 액션 영화나 고전 동화는 ‘남자 영웅’이 소녀를 구하거나 왕자님이 고난에 처한 처녀를 구하는 줄거리로 만들어져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만 봐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기사도가 여성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을 위해 문을 열어 주고, 데이트 때 밥값을 내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들 말이에요. 남성들은 종종 이런 행동들을 예의범절로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식의 행동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 뒤에는 ‘여자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워서 남자의 보호와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온정적 차별주의는 위험합니다. 이는 성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동성애 혐오증, 이성애 중심주의, 트랜스젠더 혐오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성차별주의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점은 우리 모두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인식하고, 여성들이 자신이 여자라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에요.(본문 8장 참조)



흔한 '남자 영웅'의 이야기 구조를 가진 동화나 영화 줄거리를 새롭게 다시 써 보는 건 어떨까요?
'각본 뒤집기'라는 것인데,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쓰는 거죠.

마리사 마이어의 작품인 '루나 연대기'(The Lunar Chronicles) 시리즈는 뉴욕타임스 시리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신데렐라와 빨간 모자, 라퐁젤,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쓰기한 작품들이에요. 시리즈의 『신더』에서는 당찬 사이보그 정비공이 된 신데렐라가, 『스칼렛』에서는 용감한 우주선 조종사가 된 빨간 모자가 등장하죠. 유명한 브로드웨이 연극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를 사악한 마녀의 관점에서 풀어낸 이야기고요. 이처럼 같은 이야기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되면 새로운 통찰력이 생겨나는데, 특히 젠더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중에서 여기에 딱 들어맞는 책이나 영화를 하나 골라 보세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 줄거리를 써 보되, 본래 이야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써 보세요. 꼭 여성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아요. 악당이나 약자로 등장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써 보는 것도 좋습니다.

<탐구 활동 4> 단호하게 싫다고 말하는 연습하기

호감을 얻는 게 나보다 더 중요해?

우리 문화는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억압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조용히 있고 눈에 띄지 않으면 상을 받고, 목소리를 내거나 저항하면 벌을 받는 일은 비밀비재합니다.

특히 소녀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도록 사회화돼요. 친절함이, 그리고 그 점에 호감을 얻는 것이 안전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배우죠. 그래서 많은 소녀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창피를 주거나 과민 반응을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적 안전과 감정적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힘을 북돋워 줘요. 생각해 보면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말을 잘하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싫어!”를 외쳐 보세요!

(본문 14장 내용 참조)



싫다고 말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1) 일주일 동안 평소에는 “싫어.”라고 말하지 않을 만한 것 한 가지를 골라 보세요. 크거나 중요한 것이면 안 돼요. 보통은 “좋아.”라고 대답하는 것이어야 해요.

예: 친구가 좋아하지 않는 과자를 줬을 때, 친구들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영화를 보러갈 때

이제 “좋아.”라고 말하는 대신 위 상황에서 “싫어.”라고 말하세요.

2) 일주일 동안 “싫어.”라고 말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일기를 써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어난 다음에 일기장을 읽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감정이 변해 갔나요? 연습할수록 싫다고 말하는 게 더 쉬워졌나요?

쉬워지지 않았다면 한 주 더 연습해 보세요. 죄책감 없이 “싫어.”라고 말하도록 애써 보세요. 여러분은 원할 때마다 “싫어.”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싫어.”라고 말한 상황	“싫어.”라고 말했을 때 든 느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탐구 활동 5> 울었던 남자들 찾아보기

강한 남자가 멋진 남자라고?

“강인해져라!”, “남자가 비실비실하면 쓸모가 없다.”, “남자다워져라!” 소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직한 메시지들이죠. 소년들은 ‘남자 명패’를 달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계속, 계속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디어에 비친 남성의 이미지는 더 힘세고 더 공격적이 되었고요. ‘남자 명패’를 빼앗기는 것을 최악의 일로 여겨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남성들도 존재하죠. 때문에 수많은 연구가 폭력을 저지르는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적 정체성이 강간, 성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성소수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의 동기가 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성적인 것을 향해 폭력을 표출하는 것을 자신의 남성다움을 강화하는 강력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진정한 남자’를 힘, 권력, 폭력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위해 앞장설 용기가 있는 사람, 어떤 형태의 억압이나 차별 또는 폭력도 참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면 어떨까요?(본문 20장 참조)



모든 사람은 성별에 관계없이 분노, 기쁨, 놀람, 혐오, 두려움, 슬픔이라는 6가지 감정을 경험하고 또 표현할 능력을 안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에서 두려움과 슬픔은 '덜 남자다운' 것으로 여겨져요. 소년이 울면 남자답지 못하다며 나무라거나 나약한 남자라 취급하죠. 그럼, 남자는 울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울었죠.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들 앞에서 자주 눈물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버락 오바마가 샌디 후크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직후의 연설 도중에 운 일도 있어요. 분명하게, 남자들은 당연히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존중하죠.

그럼 대중 앞에서 눈물을 흘린 다른 유명한 남자들을 찾아볼까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 앞에서 울었던 유명한 남자'를 검색해 보세요. 찾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울었던 이유도 적어 보세요.

울었던 남자들	울었던 이유

몇 개의 이름을 찾았나요? 어떤 이름을 발견하고는 놀랐나요?

또 그들은 얼마나 '남성적인' 이유로 울었다고 보나요? 운 것이 그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 경우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왜인지 적어 보세요.

질문을 거꾸로 해 볼게요. 운 것이 그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 경우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왜인지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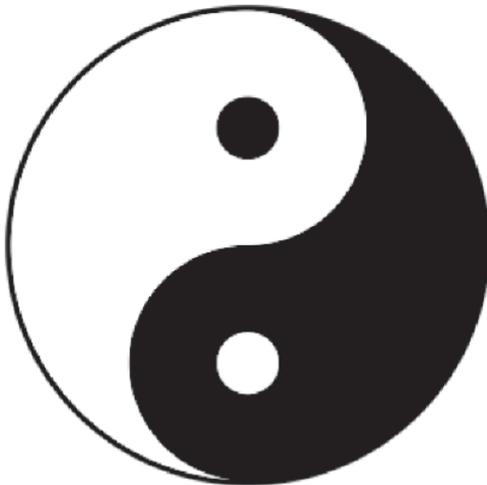
<탐구 활동 6> 음-양의 기준으로 ‘나’ 분석해 보기

남자와 여자는 다른 인종이다?

음-양 상징(아래 그림 참고)은 중국 철학의 근본 요소예요. 서로 구부러지며 맞물린 검은색과 흰색은 상호 보완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상징해요. 검은 면인 ‘음’은 어두움, 부드러움, 수동성, 고요함, 차가움, 복종 등을 대표합니다. 흰 면인 ‘양’은 밝음, 견고함, 활동성, 운동, 열, 지배 등을 대표하죠. 우리 문화는 음-양 상징에서 ‘음’을 여자에, ‘양’을 남자에 비유하여 남성과 여성을 순수하게 반대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어떤 성별 차이는 명확히 존재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사실 닮은 면이 더 많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강조하는 성차 관념이 강해지면 이 불법적 사고가 강화되어 서로 대립하게 되죠.

우리는 음-양 상징을 건강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균형과 조화, 총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고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균형을 잘 타는 사람일수록 자신감 있고 안정적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본문 25장 참조)



앞서 다루었던 음-양 상징을 활용해 활동을 해 볼게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하면 매우 강력한 활동이 될 거예요.

1단계. 각 참가자는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목록을 만드세요. 조용한지, 대담한지, 내성적인지, 학구적인지, 충동적인지 등등 자신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모두 적어 보세요.

2단계. 어떤 형용사가 더 '음'으로 느껴지는지, 또는 '양'으로 느껴지는지 골라 보세요. 음-양 상징을 따로 복사해서 그 안에 직접 써 보세요. 상징의 어두운 면 안에는 '음'으로 느껴지는 형용사를, 밝은 면 안에는 '양'으로 느껴지는 형용사를 쓰세요.

음-양 상징을 복사한 종이에 자기 이름을 쓰지 말고 형용사만 쓰세요.

3단계.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 자신의 성격은 음과 양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유지하고 있나요?

- 각각에 똑같은 수의 형용사가 있나요, 아니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비중이 큰가요?

4단계. 이 활동을 함께 한 다른 사람들의 음-양 상징을 모두 벽에 붙이고 다 함께 쳐다봅시다.

- 어떤 상징이 소녀가 만든 것인지 또는 소년이 만든 것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나요?

- 소녀들과 소년들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가 보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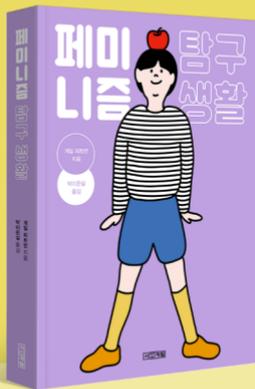
이 질문들을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집단 토론을 진행할 때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뭐라고요?”

이슈는 넘치지만 정작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페미니즘,
개념과 역사를 탐구하고
생활 속 활동으로 배우는 시간!

청소년을 포함하여 페미니즘에 첫 발을 내딛으려는 이들이 젠더와 섹슈얼리티, 인종을 아울러 페미니즘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입문서다. 여성의 '분노 표현하기'부터 '똑똑한' 여성에 대한 편견, 옷 '사이즈'나 피부색을 두고 벌어지는 억압, 내 삶에서 차별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까지 일상의 주제들로 페미니즘에 친근하게 접근하여 주요 개념들을 쉽게 풀어내고, 기존의 역사를 다시 보는 눈을 키워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탄하게 다진 페미니즘 기초 체력을 활용해 직접 다채로운 페미니즘 활동을 해 보며 '배우고 행동하는' 성숙한 삶을 가꿔 나가도록 돕는다.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배우고 행동하는
1020 페미니즘

개일 피트먼 지음 | 박이은실 옮김 | 16,800원 | 344쪽

사계절 (주) 사계절출판사

(우)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52 | 전화 (031)955-8561 | 홈페이지 www.sakyejul.net
블로그 skjmail.blog.me | 유튜브 www.youtube.com/user/sakyejulbook
페이스북 facebook.com/sakyejul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akyejul